

“호남·수도권 참신한 인재 과감한 등용을”

새정치 초·재선 의원 그룹 성명...중진 출마에 부정적 의견

7·30 재보선 승리위해 전략공천 필요성 제기 주목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선 공천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호남지역 공천이 참신한 인재 등용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당내 초·재선 의원 22명으로 구성된 혁신 그룹 ‘더좋은미래’는 24일 ‘개혁·혁신 공천으로 7·30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호남과 수도권 의 당세 우세지역에서는 역량 있는 참신한 인재의 과감한 등용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7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비슷한 내용의 의견을 모아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에게 전달한 데 이어 것이다.

의원들은 또 “당은 과거 회귀적 공천을 해서는 안 되며 개혁공천과 혁신공천으로 수권을 향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전과 의지를 국민에게 선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특히 “당의 중진 정치인들은 국민적 요구와 정치적 대의에 복무하고 헌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몇몇 중진들의 광주·전남 재보선 출마에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다.

의원들은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민주적 과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선을 통한 공천을 요구했다.

또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승리가 필수적이며, 특히 당세 취약지역에서의 승리가 절실하다”며 “자기희생적 결단으로 선거 승리를 향한 전당적 결의를 불러일으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취약지역에서의 전략공천 필요성을 용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성명에는 김기식·김성주·김승남·김현미·남윤인순·박수현·박완주·박홍근·배재정·신경민·우상호·유원석·유은혜·윤관석·은수미·이목희·이인영·이학영·진선미·진성준·홍익표·홍중학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히 친노(친노무현)계와 김근태계 등 다양한 계파 소속이어서

이 같은 분위기가 향후 당내로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당직자들은 물론 당 소속 의원 보좌진까지 당내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잠복해 있는 상황에서 호남 재보선에서 참신한 인재 등용 주장은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 지도부가 이런 당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맨 왼쪽)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리후보 연쇄 낙마...청와대 인사시스템부터 검증하자

인사추천·검증실무자 책임 커

野 “김기춘 비서실장 물러나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까지 24일 연달아 사퇴하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 자체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청와대의 인사검증은 민정수석실이 총리, 장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에게 200개 항목에 달하는 ‘사전 질문서’에 답하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재산형성 과정과 병역·납세·위장전입 등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지는 단골 소재가 대부분 걸러진다.

그런데 안 전 대법관은 퇴직 후 고액 수입료를 받은 이른바 ‘전관 예우’ 논란으로

낙마했다. 마음만 먹으면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재산 형성 내역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문 후보자는 기존의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역사관 때문에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때문에 정부 기록을 중심으로 훑어보는 기존 검증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후보자의 이념이나 국가관, 주변 평판 등 ‘다면 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현재와 같은 폐쇄적 인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인사 업무 특성상 보안 유지가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장과 몇몇 수석비서관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현재의 인사위원회의 시스템으로는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사 검증에 참여하는 인력을 늘리거나 청와대 밖에 중앙인사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철저한 사전 검증 가능

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요컨대 ‘시스템 인사’를 도입하자는 얘기다.

이처럼 총리후보 연쇄낙마는 현 청와대 인사 시스템상의 구조적 한계인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청와대 인사위원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론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조차 책임론을 거론하는 이유다.

야당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김 실장 책임론을 꺼내들며 대외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일 의원은 “김기춘 실장이 물러나고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는 현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대변인도 “인사 추천과 검증의 실무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 등 8명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국회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정한 후 제출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 모두 8명의 부총리·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

국회는 최 부총리, 이 국정원장 후보자 외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일괄 접수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도록 돼 있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인사청문회가 집중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장병완·황주홍·주영순 의원 국회 예결위 배정

광주·전남출신 국회의원 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장병완·황주홍·백근기 의원, 새누리당에서 주영순 의원이 각각 참여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결위원 등 상임위 및 특별위 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이어 본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했다.

장 의원은 “2015년은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하계U대회 등을 비롯해 굵직한 지역 현안 때문에 어느 해보다 예산 확보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하반기 국회 활동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더 긴밀한 협의를 거쳐 현안사업 해결은 물론 내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자체장 인수위 예산지원 법제화

황주홍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24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예산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장이 퇴직할 때에 대한 사무인계 규정만 있을 뿐 당선인의 업무 인수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인수위 구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둔 경우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새로 당선된 지자체장이 인수위를 구성해 운영하려면 예산을 편법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당선인 인수위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7·30 재보선 브리핑

기동민, 광주 광산을 출마...“광주의 새 길 열자”

기동민(48)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4일 “광주의 새 길을 열고 새로운 다리, 미드필더가 되겠다”며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기 전 부시장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보궐선거는 광주가 미래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여는, 과거로 가는 낡은 길을 반복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낡은 간판을 다시 갖다 다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당당한 새로운 간판을 달아야 한다”고 세대교체를 주장했다.

기 전 부시장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광주는 제 인생의 시작이었다. 대학 시절 전두환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다 전방에 강제징집됐고 이후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들어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했으며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박지일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일하면서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전략을 새로 짜다”며 “이제는 광주에서 새로운 깃발을 올리 고 싶다”고 말했다.



홍기훈, 나주·화순 출마...“지역화합 노력”

홍기훈(61) 전 국회의원은 24일 “전남 대 화순병원을 유지했던 역량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며 7·30 나주·화순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홍 전 의원은 이날 화순군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주와 화순은 지방선거의 후유증으로 지역주민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며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나주, 화순의 균형발전으로 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재선거는 임기 2년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국회의 문화와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선출돼야 한다”며 “재선의 국회의원 경험과 지역주의 극복, 구대정치 청산을 통한 개혁을 위해 어려운 길을 걸어 온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 전 의원은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둘째 아들로 13대, 14대 국회의원 을 지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하나로대출

↑한도는 높게
Up&Down
↓금리는 낮게

- 집 담보도
- 상가 담보도
- 전세보증금 담보도
- 자동차 할부금 대출도
- 카드론·현금서비스도

모든 대출을 하나로! 통합관리 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정부보증대출 햇살론 최고 2,000만원

광주원광신협

공동점 227-4474 금호점 383-4474 풍암점 653-4474

NAVER **단비플라워** 등 최선으로

단비플라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 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비파괴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